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의 구축을 향하여

후지타 타카오 (藤田高夫)

키워드 : 문화교섭 동아시아 문화연구

1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 (據點) 의 형성과 목적

2007 (平成19) 년도 문부과학성 (文部科學省) 의 글로벌 COE 프로그램의 거점 (據點) 으로 선정되어, 우리는 두개의 조직을 구성 하였다. 하나는, 2008년 (平成20) 4월 부터 개설되는 새로운 전공인 「문화 교섭학 전공·동아시아 문화교섭학 전문분야 (專修)」이다. 이전공은, 칸사이대학 (關西大學) 대학원 문학연구과의 조직을 개편하여, 종래의 종합인문학 전공과 같은 전공이다. 그 가운데 글로벌 COE 프로그램에 의한 젊은 연구자의 양성을 위한 「동아시아 문화교섭학 전문분야 (專修)」가 설치되어, 매년 박사전기과정 12명, 후기과정 6명의 학생을 받아들여, 졸업자에게는 각각 「석사 (문화교섭학)」 「박사 (문화교섭학)」의 새로운 학위가 수여된다.

또하나는 2007년 (平成19) 10월 정식 발족한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 (據點)」이다. 이조직은 연구활동의 실시를 주로 담당하며, 거점 (據點) 리더이하 현재 15명의 사업추진 담당자전원 및 거점 (據點) 형성 지원자 (객원교수·조교·특별연구원·박사이수연구원)가 소속한다. 또한, 상기 대학원 새로운 전공의 박사후기과정의 학생전원은 조사보조원으로서 거점 (據點) 에 임용된다.

두 조직은, 거점 (據點) 리더를 중심으로 사실상 하나로 운영되고, 그 위에 학장을 의장으로 하는 학교전체의 「글로벌 COE 운영협의회」가 설치되어 학교전체의 지원체제를 기본으로, 본 거점 (據點) 프로그램의 운영과 진행관리가 이루어진다.

본 거점 (據點) 의 활동목적은, 아래의 세가지로 집약된다.

① 동아시아 문화연구의 신세대 육성

동아시아 세계를 관계로 묶는 문화적 복합체로서 파악하는 다각적 시야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표력을 가진 독자적인 젊은 연구자를 육성 한다.

② 문화교섭학의 창조

종래의 양국 간의 관계 혹은 학문 분야별의 문화 교류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분야로서의 「문화교섭학」을 구축하고, 그 이론과 방법의 창조, 구체적 사례의 검토와 체계화를 이룬다.

③ 동아시아 문화연구의 허브 형성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대외관계사연구 등을 국제적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동아시아 각지역의 문화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 를 가진 연구 허브를 구축한다.

이하, 이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현단계에서의 구체적인 구상을 소개한다.

2 동아시아 문화교류연구의 현황

본 거점 (據點) 의 기반이 된 것은, 칸사이대학이 동서학술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다년간에 걸쳐 수행 해 온 ‘일·중관계’ 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교류연구 이다. 본 거점은, 그 충분한 성과를 발판으로, 더욱이 그것을 광범위 하고 한차원 높은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교류’ 라고 하는 비교적 친숙한 언어를 대신하여 「문화교섭」 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현황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문화교류연구에서는, 현재의 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가적 연구구조가 전제 되어 왔다. 일례로 일·중교류사를 보면, 동아시아에 있어서 본래는 다원적인 문화교류 속에서, 일본과 중국의 양국을 잘라 내어, 막연히 양국간의 문화교류라고 하는 틀 속에서 연구가 행해지는 것이 현황이다. 게다가, 거기에는 양국간 이라지만, 개별의 연구는 일본과 중국의 국가적인 틀 속에서 구속되어 왔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일본에 있어서 ‘일·중 문화교류사연구’, 중국에 있어서 ‘중·일문화교류사 연구’ 는, 각각 일본에서 나타난 중국, 중국에서 나타난 일본을 고찰의 대상으로 해 왔고, 국경을 초월하고 복합적인 연구조직·연구영역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예를들어, 17-19세기의 일·중문화교류를, 중국측이 「청조에 있어서 중일문화교류」 라 하며, 일본측에서는 ‘에도 (江戸)·메이지 (明治) 시기의 일·중문화교류’ 하는 것은, 문화교류사 연구가 중국사와 일본사의 각각의 틀 속에서 행해져 왔음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문화교류연구는, 주로 개별 전문분야 마다의 문물이나 제도에 관한 사례연구의 축적으로 형성 되어 왔다. 그 결과, 언어·사상·민족·종교·문학·역사등 학문분야 마다의 지식과 견해는 확실히 풍부하게 축적되어 왔다. 또하나의 「일·중문화교류」 를 예로 들어 보면, 각분야에서의 선행연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총서를 형성 할 수 있을 만큼의 질과 양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는 이른바 「개별 서술적」 인 축적의 증가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며, 일·중간에 한해서도, 문화교섭의 전체상 (像) 을 파악하는 방법의 성찰은, 여전히 미개척 분야이다. 그것은, 같은 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학문분야를 넘어선 접촉이 결핍되어, 전체성을 잃은 현대의 인문학연구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수 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세계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틀을 초월한 시각으로서 동아시아문명,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론·문화권을 무비판적 전체의 연구는, 그 문명,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고도의 문명을 선불리 설정하는 점에서, ‘문명-미개’ ‘중심-주변’ 의 도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래의 쌍방향적인 문화교섭의 본질이 파악되지 않고, 문화접촉의 다양한 모습을 표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동아시아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기회에 종래의 이러한 연구동향에 대하여 충분한 비판적 검토를 하지 않을 경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처럼 ‘중국으로부터 주변 각 국가로의 문화전파’ 라고 하는 일방 통행의 이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3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의 지향점

위와 같은 인식의 위에서, 우리가 제창하는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은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일정한 범주의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의 문화 생성·전파·접촉·변용등의 각 현상에 주목하면서, 종합적인 문화교섭 본연의 모습을 인문학의 각 분야를 포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 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연구이다. 그 구축을 위하여는, 적어도 두개의 ‘경계초월(越境)’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가적 연구의 틀로부터의 초월과 학문 분야별의 연구구조로부터의 초월이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각각의 골격이 형성되어, 큰 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채, 오늘날의 국가의 틀 속에 지속된 면이 있다. 그 틀 속에서 연구를 치밀히 해온 결과, 각 문화의 다양성은 국가·민족의 독자성이나 고유성과 쉽게 합쳐져, 타문화와의 교섭의 의의를 쉽게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타 문화와 단절되어 고립적으로 형성된 문화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문화가 타자와의 접촉·충돌·변용·융합을 오늘날 까지 반복하고 있다. 동아시아 세계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문화교섭의 연쇄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체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국가의 문화주의적 견지를 벗어난 문화적 복합체로서의 동아시아 상(像)의 형성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이 정치 과제로서 부상하고 있는 현재야말로, 강하게 요구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상(像)은, 한 국가의 문화를 타자로 부터 잘라내어 고찰하는 시각으로는 획득 할수 없다. 상호의 문화교섭을 동태적·다각적으로, 아시아 문화를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야말로, 새로운 문화상(像)으로서의 가장 유망한 도정(道程)이고, 동아시아 문화연구를 혁신하는 기폭제인 것이다.

어떤 문화를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언어·사상·민족·종교·문학·역사등 학문분야를 종합하는 입장에서 얻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개개의 연구자는 그 각각을 근거로 하는 학문영역을 가지고 있고, 거기로부터 동아시아에서 있어서 문화교섭으로 추궁해 들어가는 것이 된다. 예를들어 본 거점(據點)의 멤버의 몇명은, 나가사키(長崎)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가사키에 현존하는 중국풍 사원인 ‘가라테라(唐寺)’에 존재하는 도교신의 문제가 부상 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현상이 근세 일본에 있어서 중국으로의 출입문(窓)이었던 나가사키 특유의 것이 아닌, 일본의 선종의 유명사찰에서도 볼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그 설명을 위해서는 일본 불교사·중국종교사·동아시아교역사등, 몇몇의 학문분야의 종합과 경계초월이 유효함을 실감하고 있다.

이 두가지의 경계초월은, 물론 쉬운것이 아니다. ‘동아시아’라고 하는 한 국가의 역사관의 틀을 넘는 시점으로 부터의 연구는, 근년에 들어 활발한 양상을 띄고 있고, 중국과 한국에 있어서도 동아시아를 위주로 한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 그러한 연구시점의 소개가, 타국에게 반드시 호의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진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인문학 각 분야의 연구가 ‘동아시아’ 규모로서의 긴 세월과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융합적·학제적·종합적인 공동연구를 수행 했다고 하는 경험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거점(據點)의 프로그램은 대단히 도전적인 것임은 분명하다.

4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의 연구방법

우리가 구상하는 문화교섭학이 인문학의 한 분야로서 역사학이나 언어학등과 어깨를 견줄 만한 학문 영역으로 성장하는가 아닌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종교학이 신학으로부터 이탈하여,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성립하는 데는 1세기나 필요했던 것처럼 대단히 장기적으로 전망해야 할 문제 일 것이다. 다만, 당면한 수년간의 연구로서, 우리는 이하의 세가지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다.

I 매개로 부터 본 문화교섭의 양상: 무엇이 무엇에 의해 전해지는가?

문화를 전하는 매개로서는, 여러가지를 상정 할 수 있다. 또한 매개의 유형도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통상적으로 크게 나누어 ‘사람과 물건’ 이 상기되지만, 사람에 대하여는, 외교사절·학자·유학생·승려 등 개인으로서 파악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해적·이민등 집단으로 파악 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있다. 「물건」에 있어서는, 경전·서적과 같은 문학정보로부터 교역상품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범위를 가진다. 게다가 매개의 의미를 넓게 보면, 선박등의 교통수단, 그것을 받쳐주는 교역로, 혹은 보다 광범위하게 본다면 국제관계등, 연구대상은 점점 확대되어 간다. 이러한 것 들을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것 만으로는, 종래의 사례수집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교섭학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라고 하는 큰 영역으로의 지향이 항상 의식되지 않으면 안된다. 보다 명확히 하고자 덧붙이자면, ‘개별 서술적’ 연구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축적이 없으면 연구는 진행되지 않는다. 아니, 개별연구의 축적이라고 하는 형태 이외의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개별의 테마가 왜 설정 되었는가. 어떤 의미에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문화교섭」과 관계하는가를, 미리 조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의식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의식이 문화교섭학 고유의 영역 형성의 첫발이라 생각한다. 그 검증이 거점(據點)의 전 멤버가 참가하는 「문화교섭학 창생부회(創生部会)」의 역할이다.

II 지역에 있어서 문화접촉과 그 영향

동아시아 속에 있는 특정의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 있어서 문화교섭을 타지역과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 연구하는 방향은, 거점(據點)에 설치되는 ‘지역연구반’이 담당하는 역할이다. 지역연구반은 ‘북동아시아’ ‘연해아시아’ ‘내륙아시아’ ‘아시아역외’의 4개의 연구반을 두고 있다. 4개 연구반 가운데 「중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 ‘고정적 문화중심’의 설정을 피한다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방침이지만, 동아시아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국문화에 어떠한 위치를 부여 하는가는, 어떤 의미에서 결정적이다. 각지역에 있어서 문화접촉을 연구 하고자 할때, 중국문화와 어떠한 관계를 결부 했는가라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각 연구반은, 해당지역이 중국문화와 어떻게 접촉하고,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혹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시점을 공유하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문화의 위치를 재조명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각 지역이 문화적 복합체로서의 동아시아 속에서,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규정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한다. 그것을 위하여 각 지역 연구반은, 각각 주된 담당의 공동연구과제를 설정하고, 타 연구반의 구성원 에게도 적당한 참

가를 요하면서, 문화교섭에 있어서 지역성의 검출을 진행해 가는 것으로 한다. 예를들어, 일본과 한국 등을 포함한 북동아시아반은, 이미 ‘동아시아에 있어서 서원’ 을 공통 테마로 연구를 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도 포함된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통적 학술 기관으로서의 ‘서원’ 의 비교연구로부터, 해당지역의 문화 계승의 차이와 그 배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연구 테마의 복합이 동아시아에 있어서문화교섭의 다양성과 공시성(共時性) 을 부상 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III 타자로 부터 본 문화상(像) 과 문화 정체성의 형성

이 연구 방향은, 본 프로그램의 부제로 내세운 ‘주변 관계의 접근에 의한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상의(像) 창출’ 과 밀접히 관련한다. 자화상과 타자의 손에 의한 초상의 겹, 그리고 타자의 자기인식이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이문화 접촉을 생각 할 때 반드시 표면화 하는 문제이다.

종래의 아시아 문화연구는, 일본문화·중국문화등 한나라의 문화 특질과 그 형성을 어디까지나 일국(一國) 의 틀 안에서 행해 왔다.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심’ 이나 ‘핵’ 에 관심을 집중시켜, 중심과 비교되는 것, 즉 ‘주변관계’ 를 분석대상으로 부터 제외하고, 순수화된 문화의 모습을 추출하는 방법이 취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타문화와의 접촉은 항상적(恒常的) 으로 이루어지고, 문화접촉은 버려져 왔던 ‘주변관계’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의 문화가 타자의 눈에 띄어, 충돌·변용·융합을 거쳐 수용·정착 한다라고 하는 문화교섭의 다이나미즘은, 주변관계를 파헤침으로써 비로소 파악이 가능해진다. 또한 타자의 눈에서 변화 되어진 문화상(像) 은, 자화상으로서 순수화 되어진 문화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지만, 그것은 종래의 중심 지향의 문화연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문화의 본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를 부상 시키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풍부한 ‘주변관계’ 에 쏠리는 시각을 본 프로젝트에서는 「주변관계의 접근」 이라 하고, 문화교섭학을 형성 하기 위한 기초적 방법론이라 생각하고 있다.

의식적으로 ‘주변관계’ 의 입장에서 대상을 분석하는 것은, 어떤 문화를 동아시아 문화속에 상대적 위치를 부여하는 것임에 틀림 없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동아시아의 전통적 문화 패러다임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인식 되어 왔던 중국도, 문화교섭의 허브의 하나라고 하는 위치가 부여되어진다. 동아시아 문화에 있어서 중국의 위치를 이렇게 전환 하는 것은, 아시아 문화연구의 틀을 크게 변혁 시키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중심’ 과 ‘주변관계’ 는 서로 유동적이고, 또한 복수의 ‘중심’ 사이에 끼어 있는 무관심 지역도 ‘주변관계’ 의 한 유형임을 생각하면, 동아시아 문화의 현실은 중국과 그것에 대항하는 각국 문화의 단순한 조합이 아님이 이해 될 것이다. 여기에, 다대다(多對多) 의 문화접촉의 연쇄로서 동아시아를 파악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 체계로서의 문화교섭학의 기본적 시각이 얻어지리라 생각한다. 본 프로그램은, 이른바 ‘다문화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또한 개별 문화 연구의 유기적 연결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동아시아 문화상의 창출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테마는 동아시아 문화의 전체상(像) 을 그려낸 위에서의 ‘기반’ 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우리가 구상하는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의 개요와 연구방향을 소개 하였다. 이 구상의 옳고 그름은, 궁극적으로 본 거점(據點) 멤버의 성과에 달려 있음은 말 할 것도 없다. 첫 단추를 끼워 놓은

단계이지만, 그 일단이 바로 처음으로 발신하는 이 연구개요이다.